

붓질의 공명 “now here” 화가: 박 다 원

필자: 박 래 경

타협의 여지없는 결정적 순간에 거침없이 한 획을 긋는 박 다 원의 최근 작업, <now here> 연작들은 그가 그간 줄곧 추구해 오던 작업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련의 현장에 해당된다.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강하거나 부드러움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에 있어 매우 함축적인 힘의 표출이 과감한 붓질에 의해서 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여기에는 어떤 현상세계에 대한 암시나, 유기적이든 무기적이든 대상세계에 대한 형태상의 반영이 없다. 말하자면 일종의 추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즉 추상 일반론만으로는 그의 그림에 다가설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직감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그의 추상화면 속에는 사실 우주와 나, 자연과 나, 인간과 나에 대한 사유와 명상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의 추상화면 속에 그가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구상세계가 하나하나의 화면에 어떤 식으로든지 녹아있다면 우리는 그의 그림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 하나의 획이 혹은 하나의 점이 그것을 암시하며 들어날지 모를 그 어떤 긴장감마저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한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늘 그의 화폭에는 담겨져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now here>라는 박다원의 연작들이 우주와 나, 자연과 나, 인간과 나의 만남의 순간의 공간이라고 풀이 해 본다면, 오히려 그의 그림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또 그 점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레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설명이 아니고 직관과 같은 정신력의 발동은 오히려 그런 방향에 빨리 접근하게 하는 끄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그의 그간의 작업에 대한 노력과 축적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그의 작품에 다가서 보기로 하자. 그의 그림에는 일단 바탕 화면에 먼저 점과 선이 자유롭게 위치해 있다. 그런데 넓은 여백으로 차지하는 바탕 화면뿐만 아니라 점과 점 혹은 점과 선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서의 공간이 있다. 말하자면 숨 쉬는 틈새, 혹은 빛의 파장이나 리듬의 공명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전개 공간,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박다원의 작품에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조형적 구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형작업이라기보다는, 우연의 필치가 필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정신성에 의한 독자적인 조형성을 지향하는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일획으로 휘어 갈기는 뜨거운 서체추상과 같은 몸짓의 표출이 자유로움을 화면에 풀어놓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겹쳐서 엄격한 자제를 보여주는 차가운 억제력이 이에 더하여 작용되는 경우와 같이, 상반되는 성질의 조형요소의 속성들이 한자리에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연과 필연의 공존, 그리고 자유로움과 자제력의 동시 작용은 궁극에 가서 화면에 생동감을 주며 나아가서 전 화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힘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작가의 화면 경영과 관리가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로운 표현과 함께 그것의 억제에서 역설적으로 생동감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운 숨, 파동, 리듬을 화면 전반에 에너지로 전파시켜 화면에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그의 화면은 사실 부드럽거나 강렬하며, 자유롭거나 스스로 절제하며, 느리거나 빠르

게, 비어있으면서 가득차게 하는 상반적인 조형 작용에 의해 조형적으로 밀받침 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그 점은 바로 그의 그림이 예술이 되게 하는 요체를 이루는 바탕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과 인간의 삶, 자연과 우주의 현상들을 생각하고 고뇌하고 명상하고 수련하여 행위의 주체자이며 동시에 행위의 공간이 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용광로가 중심이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주체자 스스로가 작업 전에 그의 마음의 평정을 꾀하는 구도자적 자기 단련이 수반됨으로써 비로소 작화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그러한 초일상의 삶의 양식과 예술 작업을 병행해 온 과정에서 작품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최근 2년 간 계속해 온 <now here>시리즈에서 집중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정신적 싸움에서 살아난 작품들이라 하겠다.

인간의 삶과 인간존재에 대한 고뇌는 우리들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면서부터 부딪히게 되는 피해갈 수 없는 동반현상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고뇌와 그에 따라오는 허무에 대한 상념은 극단의 경우 삶 자체를 포기 하게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와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길을 택하게 마련이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험난한 길을 기꺼이 택하는 것이다. 매사에 예민한 예술가들은 각자 어떤 방식을 취하여 자기의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까? 평소애 작업을 “자신을 걸러내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는 박다원의 경우를 여기에 잠깐 더듬어 보기로 하자. 그것을 위한 길잡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태생적 기질에 대해서 더듬어 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성장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 깃드는 담백하고 정갈한 성향은 먼저 그 뿌리를 생태적인 측면에서 맨 먼저 더듬어 볼 일이다. 말하자면 그의 작품에 영성이 어른거리는 것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의 기질이다. 기질적으로 보면 박 다 원은 직관이 매우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여 많은 예술가들의 타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존감이 매우 강한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하기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의 할 일, 역할이 있다고 굳게 믿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칫 오만과 자만심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자기수양의 필요성에서 그 점은 희석 될 수 있다.

이 작가의 경우, 흔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도 이를 뚫고 나갈려는 강렬한 의지의 소유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를 극복 하기위해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감정처리도 매우 잘 하는 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만큼 그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할까, 어릴 때의 그를 아는 사람들의 기억은 그 점을 상기 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 삶의 고뇌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온 몸으로 겪고 있는 것 같은 상념에 시달리다가 문득 어느 순간 깨달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 이 때에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영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그리고 자존의 힘도 되살아날 것이다.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스스로에게 거는 정신적인 쟁투는 다름 아닌 자존을 위한 정신적인 힘의 배양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궁극에 가서 간결하고 분명한 작화 진행의 내면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의 작화태도에도 관련이 있다. 그것은 조형적 구성에서 완성에 이르기 까지 모두 눈앞의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정이 아니고 작가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

된 작업이 캔버스를 앞두고 이를 주시 하면서 일순의 망설임 없이 행위의 붓질로 바뀌는 것으로 가시화 되는 것을 뜻한다.

박다원은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그가 성장한 가정환경은 그런 충명한 아이에게 안정맞춤인 자양분을 마련해준 격이 된다. 동, 서양을 막론한 미술에 대한 부모의 식견이 대단하였고 작품 수집, 또는 관리를 통해 쌓이게 되는 서화와 미술서적은 그에게는 놀라움이 아닌 일상의 생활로 여기게 되는 환경이었다. 성장과정에서 아이의 기질이나 잠재력의 발휘를 위해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서화의 기본기를 익히게 하려는 모친의 노력은 옅고 비싼 화선지를 거리낌 없이 제공하는 일에도 아낌이 없었다. 석제 서병오, 죽농 서동균 과 같은 이름 높은 이 지방의 서화가들이 전성기를 이룰 때이고 이들의 그림 옆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 각인되고 쌓이는 좋은 환경 이란 말이 된다. 대학1년에 추사 김정희의 < 세한도 >를 보게 되는 계기는 그에게 또 다른 경험을 각인 시켜 주게 된다. 그 때의 놀란 경험은 두고두고 그의 마음을 놓지 않은 체험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공감이나 감동이 아니고 한마디로 떨림으로 다가 오는 정신의 교감 그 자체였던 것이다. 추사의 선에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그는 대학시절 붓끝에서 찢어지던 옅은 화선지의 기억을 뒤로하고 종이 작업을 잊고 있었다.

캔버스 작업을 하던 박다원의 마음속에는 이제 서서히, 거의 무의식화 되어 있던 어릴 때의 손끝의 기억과 선은 마음으로 굶는 것이라는 선생의 말씀이, 되살아나기 시작 하였던 것이다. 그의 캔버스 작업에 넓은 화면공간과 함께 선이 되 살아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초기의 사실화에 나타나는 그의 그림 가운데에는 어딘가에 사실을 넘어 서는 초사실적 성향이 들어서는 것을 그 스스로가 선호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간의 과정으로 보아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주목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에 가서 근래 10년간의 모색과정을 거쳐 그가 드디어 도달하게 된 단계는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과 형식에 의한 자기양식의 확립이며 그것은 다른 아닌 서체적 점, 선과 공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인 셈이다. 그는 하나의 필연적인 길을 찾아낸 것이다.

1990 년대 말경부터 일기 시작한, 새로 닥칠 세기를 향한 증후들이 인간의 마음을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기울게 하였다. 끝을 모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에 대한 신뢰는 과거의 어느 시대에 비견해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장미 빛의 미래를 전망 하게 하였다. 한편, 바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불안한 시대로 내다볼 수밖에 없는 지구 위에 사는 인간들의 무력한 군상들은 오래전에 이미 졸업했다고 생각했던 미래예측의 미신에 다시 사로잡히고 있다. 부적 아닌 사물들을 부적으로 삼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영물로 삼아가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방면의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금융경제의 세계화를 비롯해서 세계화의 물결이 삶의 모든 부분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지역화의 문화 세계화를 통해 세계는 다시 새로운 블록화를 시도하는 가운데에 국지적인 사고, 사건은 바로 세계 뉴스로 세계에 전파되고 영향을 받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급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 가야하는 인간 개개인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극복하기 힘든 충격과 함께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갈구로 마음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철학자, 사상가, 종교인들의 주요영역이었던 고

버하는 인간 정신에 대한 사유와 명상이, 이제는 일반대중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문제로 삼는 주요관심의 영역이 되었다. 코너로 몰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한편 점점 더 그 힘을 잃어 가기에 이르렀다. 인간 영혼의 구제, 이 말은 서양 중세시대 수도승의 필사본에서나 찾을법한 개념이 이제 오늘을 사는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입에 담게 되는 말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오늘의 상황은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예술적 행위와 예술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대적 요청으로 다가 오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예술가의 역할로 집중적으로 들어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아닌 위로와 치유, 즉 인간 서로의 위로와 치유라는 하나의 예술 기능이 더 보태지는 일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인간애의 회복, 선린사상의 고양, 생명의 존엄을 고창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생명의 아픔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뒤 따른다는 역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봉착하게 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이다. 특히 인간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 식물, 생물 할 것 없이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그 점에 대한 연민의 정은 가늘 수 가 없게 되었다. 심오한 종교사상이 그 점을 일찌감치 설파 하였으나 이 문제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예술가가 그들의 표현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행동력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예술가권 내에서도 움터 오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박 다 원의 작업을 그런 시대요청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그림이 변화하면서 일으키는 힘이 부드럽게 세상과 공명하며 포용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시대는 이미 그의 작품에서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의 작화 방식을 다시 상기 해 보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퍼 내오는 독특한 창작 방식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그는 자신의 작업이 사람을 걸러내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깨끗한 영혼의 소지자, 그것을 그가 회구하는 일 외에 무엇이 그에게 더 소중한 일이 있겠는가. 한 때 초현실주의를 주창한 앙드레 브르통이 말한 것처럼, 그 이념을 위해 정말 원했던 것은 동양의 추상이라 하였는데 오늘의 한국 작가 박다원의 초현실적인 작업에서 이 점을 다시 재확인 할 수 있다면 이 계열의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재정리해 보아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